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신 성 중
편집인:윤 명 식
편집국장:손 경 수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8300 FAX: 563-3932
사서함: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묵회 지침 표어: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예수 사랑, 가슴에 품고 전하자

풍성한 잔치 위해 기도와 전도에 힘쓰자

92 예수 사랑 큰 잔치가 각 분과 지도 목사와 분과장 장로및 관계자들의 기도와 성원 속에 단 계적으로 막바지를 향해서 달음 질하고 있다. 성도들의 관심도 점차적으로 고조되어 이 잔치가 전 정으로 큰 잔치가 될 확신을 갖게 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지난 헌신 예배시에 작성한 전도 초청자 카드를 보면 전체 교인 중에 2,251명이 참여하여 25,584명을 작성하였다. 이 숫자는 전체 교인의 20%에 해당되는 것으로, 참

여가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작성자들 중에 한 명이 일반명을 작성한 것을 제외하면 한 사람당 평균 8명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하자고 하는 데는 근사치에 달했으나 전체 교인의 20%만이 참여했다는 것은 아직도 참여도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홍보분과에서는 이 잔치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에 전도 뗏지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자들이 될 때에 이 잔치는

우리의 잔치가 아니요 예수님의 잔치가 될 것이다.

이제는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제는 산울이나 동네로 가서 급하게 전할 때가 되었다. 예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며칠 동안 열심히 전하여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당회장 신성중 목사도 이 잔치가 은혜중에 치루어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친히 뗏지를 다시면서 온 교인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중헌의 성도들이 되자.

새가정부
세미나 개최

새가정부는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야 하는 새 가정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주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가정이란?”

·장소: 교육관 201호

·시간: 오전 11시

·강사

10월 11일 윤영탁 목사

10월 18일 이형수 집사

심령부흥회 오늘 마쳐

지난 10월 8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심령부흥회로 중헌의 성도들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영적 거듭남을 새롭게 체험하고 있다.

부흥회 첫날 선포된 강사 김선운 목사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면 죄인의 모습을 지닌 자신의 애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라는 설교는 참석한 성도들을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9일과 10일로 이어진 새벽기도회나 성경공부,

심령부흥회는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의 시간들이었다. 특히 이번 심령부흥회는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의 잔치에 밋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초청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아 더욱 의미가 깊은 성회였다.

오늘까지 계속되는 부흥회 집회에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헌프리즘

◎...11월 1일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앞두고 준비위원들이 분주하다.

매일 새벽기도회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기도회와 진행 절차를 의논하며, 효과적인 배가 운동을 모색하고 있다.

당일의 교통 및 주차 안내를 비롯하여, 새신자와의 만남을 위한 각 교구별 지정 만남의 장소 설치 문제, 그리고 처음 교회 오신 분을 위하여 교회

소개를 함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비디오 제작 문제, 그리고 이와 잔치라는 명칭이 붙었으니 선물이나 떡 잔치를 어떻게 해야 가장 바람직한가를 머리를 맞대고 교역자, 장로들이 숙의하고 있다.

하기야 1차 목표가 3만 5천명을 초청하는 일이니, 그 규모나 행사 계획이 엄청날 수밖에 없고 이들의 수송 문제와 결실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야 할지도 숙제 중의 숙제로 나타났다.

결국 모이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며, 최선을 다해 이 일에 적극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일과 그리고 최종 결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너무 더디게 하지 마옵소서.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사랑”스티커가 우리 교회 성도들 차량에 일제히

부착되었다. 차량관리부 회원 50여명이 열심히 수고한 보람이다.

그런데 부착한 스티커를 일부러인 하지만 떼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어 이중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 물론 예수사랑 스티커를 붙이고 교통위반도 할 수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장소에도 갈 수 없는 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우리들이 기도으로 시작된 전도 운동인 만큼 분위기 조성에도 모두가 힘을 합하자.

카메라 초점



▲ 요즘 들어 매일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교역자와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은혜중에 치를 수 있도록 기도회와 회의를 갖고 있다.



▲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자는 차원에서 전도뗏지 달기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전도뗏지를 다는 당회장 신성중 목사.

경로대학
15일 야외학습

살롬경로대학은 오는 10월 15일(목) 임진각과 오두산으로 야외 학습을 간다. 이 야외학습을 통해 자연 경관을 즐기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특히 오두산에서 북녘땅을 바라보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된다. 야외 학습에 60세 이상 우리 교회 노인뿐 아니라 타교인이나 불신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오늘(11일)까지 받는다.

15교구 모임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은혜 중에 맞이하기 위해 15교구는 예비 모임을 갖기로 했다.

1. 남자 성도 모임
일시:10월 15일(목) 저녁 7시
장소:칼빈홀
2. 여자 성도 모임
일시:10월 16일(금) 오전 11시
장소:베다니홀

영아부
구연동화대회 가져

영아부는 구연동화대회를 9월 27일에 예선, 10월 4일에 본선으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연습한 결과, 출연한 많은 학생들이 놀라운 구연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중 우수한 아기들을 엄선하여 오늘 시상키로 하였다. 입상자는 특등 한별(사랑2반), 1등 박영준(민음6반), 2등 이은지(소망8반), 김지윤(소망1반), 3등 김상하(민음3반), 이수환(소망6반), 조혜영(소망5반), 장려 박재홍(민음2반), 채유식(민음2반), 송경은(소망5반), 장서영(사랑2반), 유자현(사랑8반), 김지선(민음7반)이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계7:1~17)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계시가 있습니다. 과거계시와 현재계시, 그리고 미래계시가 그것입니다.

1장은 과거계시이고 2장과 3장은 현재계시이며 4장부터 22장은 미래계시입니다. 현재계시는 지상의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계시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 내용들은 마치 용수철과 같이 서로 연결되고 반복되면서 점차로 앞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계시입니다.

“가로되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7:3)

요한계시록 7장은 보충계시입니다. 6장에는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 계속되는 7장에는 일곱째 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따

원을 받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계7:1)

본문에는 네 천사가 나옵니다. 이 네 천사는 땅의 모든 문제를 돕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땅의 사방을 붙잡아 바람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땅의 사방이란 곧 동서남북 네 방향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땅의 모든 움직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

인 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인데, 이는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사탄의 인은 666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계7:5~8)

여기에는 많은 족속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7:9)

이 말씀에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결의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의 옷입니다.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

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7:13, 14)

큰 환란이란 것은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 때에 주의 종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구원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생활이 지루한 생활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최근 국내의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침승을 위해 죽었다고 하는 열토당토 않은 이론을 발표하여 교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 다원주의에서 비롯된 생각인데, 이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신학사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한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계7:15)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생활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지상에서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천국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움직여

라서 본 장은 보충계시입니다.

그 내용은 인맞은 14만 4천명에 대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숫자를 매우 중시합니다. 그들은 구원 받은 사람은 인을 맞은 오직 14만 4천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성교회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성경적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인맞은 사람의 숫자인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숫자가 문자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14만 4천이 훨씬 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숫자만큼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14만 4천명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인간의 완전수인 10을 하나님의 완전수인 3과 서로 곱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12×12×10×10×10을 하면 바로 이 숫자가 나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단지 문자적인 1,000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 12×12, 즉 144는 구약의 대표와 신약의 대표를 곱한 수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믿은 사람과 신약시대에 믿은 사람들이 구

사람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우리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계7:2)

“해돋는 데로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단적인 해석 가운데 대표적인 해석은 해돋는 데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국이나 일본 사람들도 모두 자기 나라가 해돋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7:3)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입니다. 이마라는 것은 인격의 상징입니다. 또 오른손에 인을 칩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움직입니다.

우리들은 전도할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계7:4)

성도가 드릴 경배의 내용은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7:10)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계7:11)

이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보좌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경배의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계7:12)

경배의 내용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

는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계7:16)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므로 우리들을 인도하여주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게 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7:17)

목자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I.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하나뿐인 지구, 지구를 살리자"라는 구호가 지구촌 구석구석을 강타하고 있다.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는 우리의 산천 초야가 산업 발전의 전제 아래 오염되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물 좋기로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운했던 우리였는데, 각종 가정용 정수기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생수 판매가 일반화 되고 있다. 더구나 약수터나 지하 생수를 수돗물 대신 식수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것들은 환경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경 오염의 실태와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구의 환경 보존을 위한 기독교인의 책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환경 오염의 원인과 실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는 일본의 산림 수탈에서 비롯된 토양 파괴나 홍수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물과 공기는 맑고 깨끗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무계획하고 무절제한 도시화와 주택구축 산업 정책으로 급속한 환경 파괴를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GNP를 '공해와 맞바꾼 성장(Growth National Pollution)'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공해 현실을 비유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 심각성은 위기 상황에까지 왔다.

① 물의 오염

그 주범으로는 날마다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 식수와 독소나 중금속들이 포함된 공장 폐수, 그리고 골프장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쓰이는 독성 농약을 빼놓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페놀유출사건이다. 페놀 무단 방류로 낙동강이 오염되고 영남 지방이 수돗물 파동을 겪게 되었고, 그후 환경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외 물을 오염시키는 데는 산성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궁창으로 변해가는 도시 주변의 강들의 오염은 바로 우리의 건강과 목숨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② 공기 오염

식수만 마나라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또한 심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화와 도시 거대화로 대기 오염은 심각한 수위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월에 발표한 1월~5월 중 서울 지역 대기 오염도에 따르면 아황산가스 농도가 미국의 LA보다 69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과 대형 병동의 굴뚝에서 나오는 난방 과정의 가스와 수 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엄청난 분량의 배기가스로 인해

▶ 충현논단 ◀

기독교인의 환경 보호

김찬곤 목사(제16교구, 청년1부 지도)



가로수가 죽어가고 건물의 색이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가 나타난다. 이는 냉장고(대형화 현상에 더 많은 영향), 에어컨, 무스가 포함되는 분사제 등을 만드는 과정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존층을 파괴하여 태양광선이 직접 지구 위로 들어오게 하여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밖에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상 기후와 기상 이변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③ 땅의 오염

오염된 강물과 산성비로 땅이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무분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땅이 점점 산성화되거나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산림 벌채로 인해 땅의 영양소가 유실되어 아무런 생물도 살지 않는 황무지와 사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땅의 오염에 중요한 몫을 하는 것에는 산업폐기물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일회용품과 음식을 찌꺼기는 온 대지를 찌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한 예로 농토를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쌀생산량은 1980년에 520만톤으로 1960년의 320만톤에 비하여 1.6배 증산되었다. 동시에 비료 사용이 2~3배 증가되었다. 그러나 토양 중 잔류하여 산성도를 높이고 영양소 보유력을 저하시킨다. 그 결과 농약은 더 강해져야 했고, 농민들은 1년에 농약과 관련된 병으로 1,0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생태계에 유해한 곤충들이 사라져서, 병충해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는 탐욕과 욕심의 단일함을 사모하는 것, 즉 말씀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1:5)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에 차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 땅에 전쟁을 준서서 포로되게 하시고 땅을 쉬게 하셨다. 매년 불어오는 태풍은 메와 바람을 동반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의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 오염된 강과 바다, 대기과 땅을 청소하기 위해 작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허락하심을 알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뿌리는 씨는 우리가 거두어야 한다는 사명을 잊어서는 안된다.

III. 기독교인의 책임

실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는 그 근본을 파악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폐수를 버리고 적발이 되면, 벌금만 물면 되는 이러한 체제가 아니라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 위기는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묻는 시험(test)이다. 자본주의 풍토에 만연해 있는 '욕망의 만족이 행복'이라는 기준에 따라 살 것인가 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부터 교회에서 폐지를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적으로 전체성을 띄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나오는 폐지도 엄청난 양이 되는데 분리 수거하지 못하는 실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일회용품, 젓가락, 접시 등의 사용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가정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한다. 일회성 인쇄물들(예 주보 등)은 재생용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한 환경단체는 "폐지 1톤으로 순수한 펄프 850kg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직경 18cm,

길이 8m의 통나무 20개 분량에 해당한다."고 계산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종이 생산량은 총 492만2천톤인데, 1년간의 소비 과정을 거치면서 약 2백9만4천톤이 폐지로 회수되었다. 그러니까 282만8천톤이 사라졌는데, 이를 예의 그 통나무로 계산해본다면, 지구상에서 5,656만그루가 없어진 셈이다. 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것보다 폐지로 종이를 만들면, 전기나 기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일년에 2천억원 이상씩 폐지를 수입해온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원재활용이란 명목으로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쓰레기 수입액이 1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사회 한 편에서는 쓰레기를 묻을 데가 없어 야단인데, 비록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는 실태이다.

환경보호는 거창한 구호나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은 새 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태계의 파괴를 생각한다면, 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을 버려야 한다. 새 것 사용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결국은 좀더 편하기를 거부하는 창조적 기독교 의식의 회복에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한 자료 조사 결과,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27.06%),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23.14%), 과학의 발달(12.94%), 인간의 타락된 마음(11.76%) 등이 두 자리를 기록했다. 이로 보건대 환경보호의 첫 출발은 의식의 대전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 강단을 통한 말씀 선포와 바른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도들은 자가용 덜 타기 운동도 전개해야 한다.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여 최소한 주일만이라도 배기가스 배출의 날로 선포하였으면 한다.

IV. 맺는 말

성경은 우리가 고쳐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지금의 환경은 어떠했을까? 환경 위기는 패역한 세대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말씀에 따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그래서 환경 위기를 극복한다면, 환경위기는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함께 산다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우리가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우리는 이마에 땀을 맺어야 한다.

성경 제3권 - 레위기

1. 역사적 배경과 저자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형대로 성막을 건립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으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성막을 세워 놓고(출40:17)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의 기간인 한 달 20일 동안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민10:11).

2. 중심 사상

레위기의 중심 사상은 성결, 희생, 속죄로 요약할 수 있다.

(1) 성결 : 하나님은 구원 설리를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영육의 성결을 원하고 계심을 이 책을 통하여 보여준다. 즉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음식의 규례와 모든 제사 의식의 규례들을 다른 민족들의 그것과 분리하도록 말씀을 통해 규정지어주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서는 "내가 거룩한 것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레11:44, 45)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2) 희생 : 원래 희생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시였으나, "생명은 피에 있다"(레17:11)라는 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값진 생명의 선물을 바쳐야만 되게 되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흠없고 순전한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 상징적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희생제물의 생명과 피 흘림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되었다.

(3) 속죄 : 레위기의 핵심은 16장 속죄일의 기록인데, 이는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졌다.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자신의 죄를 속죄소에 뿌리셨다고 기독교인들은 믿는다.

3. 목적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자기 백성 중에 거주하실 수 있게 하는 랍령집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이 계약을 지키라고 경고하시면서 이를 지키면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사랑하게 애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 이니라"(레26:11, 12)는 결론을 내리신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의 예배 생활, 공공 생활, 사회 생활, 도덕 생활, 경제 생활을 법제화하신다.

전하지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최인근 목사(교구위원회 · 제14교구 지도)

누가복음 14장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합니다. 잔치를 마련하는 주인은 기쁨으로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것 저것 준비에 미흡함이 없는지 분주하게 다니며 설 틈이 없습니다. 혹시 초청을 받은 손님이 실망을 하지 않을까, 웃은 무엇을 입을까? 인사말은 어떻게 하지? 또 얼굴 표정은...

우리들은 이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의 마음과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정이요 일련의 행사로 간과해 버리는 "이 정도면" 하는 안일함으로 우리 마음을 안주하게 하는 안타까움이 잔치의 분위기를 무겁게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직시하는 안목이 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도전받으며 새롭게 형성되어야 합니다.

충현교회는 11월 1일에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 장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떠들썩 하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선교사"라는 말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신 자들은 모두가 선교사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치 않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과 전도의 열망이 있어야겠습니다.

2.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취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전도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는 구속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구

속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전도에 열의가 없다면 구속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온 몸이 가득 찼을 때 예수의 사랑이 그를 사로 잡았습니다. 그는 예수에 미치고 예수에게 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날렸고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취하자, 형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뜨거움이 그에게 용솟음쳤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11월 1일에 초청을 합시다.

1) 초청할 대상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초청 대상자는 먼저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친척중에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와 이웃,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는 분들(유유, 신

문, 요구르트 등을 돌리는 분)과 단골로 다니는 슈퍼나 가게의 주인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초청해야 할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초청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작정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분간의 시간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 하루에 1시간은 전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할 자들에게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11월 1일은 반드시 충현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4)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 주시고 인도 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5)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초청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6) 구역 식구들이 합심해서 초청대상자를 위해 기도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 초청하기 어려운 이웃은 구역원 모두가 동원되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친절히 대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어 가능하면 10월 중에 구역 모임에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까지 우리들은 변명이 아닌 진실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칩시다. "와 보라"

왔다.

지난 10월 4일에는 임성한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관계중심 전도"라는 제목의 전도 특강을 열었고, 오늘은 찬양기도회와 반별 심방 및 전도를 실시

한다. 또 18일에는 사랑의 현장 탐방, 21일에는 전체 기도회, 25일에는 예수 사랑 청년 잔치를 실시하고, 교회 총동원의 날인 11월 1일에는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적극 동참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청년1부는 교회 배가 운동에 부응하고자 10월 한 달을 예수 사랑 큰 잔치의 달로 정하고 갖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출석회원들의 영적 배가와 잃은 양을 찾고 태신자들

를 낚는 일에 주력하고 전 교회적

청년1부 10월을 예수 사랑 큰 잔치의 달로

으로 전개하는 예수 사랑 큰 잔치와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주일 예배 참석 독려, 잃은 양 찾기, 찬양과 기도회 활성화, 반별 심방 및 전도, 전도 교육, 결신자 관리 등의 실천 방안 세

● 구역예배 ● 92 예수 사랑 큰 잔치 전도 특별공과
(1992. 10. 11)

성도의 전도하지 않는 죄

· 본문 : 고린도전서 9장 11절~27절 찬송 : 268장, 273장

· 요절 :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전도자 바울은 자기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며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공과에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1.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믿는 자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이 이 독생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리에 옮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셨습니다(눅15:7). 전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에 그 뜻을 이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곧 불순종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2. 불신자 편에서

불신자는 영적 고아이며, 영적 병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하여 불신앙 가운데 거할 때 그들은 멸망당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신자들이 전도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신자

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의 병은 세상의 의약으로 고칠 수 없는 사망의 병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입니다. '불고지죄(不告知罪)'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면서도 전도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곧 사회에서 말하는 불고지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약4:17)

3. 신자 편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죄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전도할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은 당연히 할 일이며, 그는 전해야 할 직분과 은혜와 사명을 맡았다고 고백하였고, 나아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의 인식입니까? 교회는 전도의 대리자요, 교인은 전도의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은 어떤 이유로도 거부되거나 경시될 수 없습니다.

◆ 적용

오는 11월 1일은 "나도 한번" 이 생명 구원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교회적인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 비전과 분부에 우리 가진 달란트를 온전히 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가능합니다!

◆ 기도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생을 이같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우리 자신이 늘 감격하게 하옵시고, 이 복음을 우리 모두 담대히 증거하여 올 가을에 신령한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